



즉시 배포용: 2022년 3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00,000 가구의 연방 브로드밴드 적정 가격 프로그램 참여 발표**  
**복수의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저소득 가정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  
**새롭게 참여한 뉴욕 가정은 연방 보조금으로 약 3,600만 달러 지원 혜택**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복수의 정부 기관이 브로드밴드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 끝에 추가적으로 100,000 가구의 신청 대상 뉴욕 가정이 연방 정부의 [적정 가격 연결성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에 매월 최대 30 달러의 인터넷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가격이 적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브로드밴드를 통해 우리는 가족, 직장, 학교, 보건 서비스와의 연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정부 기관과의 협업과 연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 전역에 브로드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DPS)의 주도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뉴욕주는 매일 지원 대상 참여자의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기준 715,000 가구 이상이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뉴욕은 약 40 퍼센트의 참여율로 네 곳의 대형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월 초 시작한 캠페인은 30 퍼센트 이하의 신청 대상 가구가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현재 약 3,600만 달러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총 보조금 규모는 2억 5,000만 달러 이상입니다.

Rory M. Christian DPS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및 고객 봉사는 우리 주의 최우선순위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지원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통해 모든 지원 대상 소득 규모의 가정이 고속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DPS는 다른 공공 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주지사의 커넥트올(ConnectALL) 이니셔티브에 따라 주 전체의 모든 정부 인식 및 마케팅 캠페인을 주도하여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의 등록을 늘릴 것입니다.

브로드밴드 지원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뉴욕주 기관과 그 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및 장애지원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사회복지 서비스 사무소에 지원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할 것을 지시했고, 자동 브로드밴드 보조금 답변을 모든 이메일에 적용했으며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using and Community Renewal)**는 비영리 주택 파트너 및 부지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아동가족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사회 서비스, 육아 허가자, 보육 제공자, 위탁 보육 및 자원봉사 기관의 지역 부서를 통해 광대역 보조금을 촉진하고 소셜미디어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주 전역의 지원 채널을 통해 보조금을 홍보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부지 소유주에게 프로그램 홍보물을 전달하여 공용 공간에 게시하거나 주민에게 배포하고, [공익광고\(PSA\) 동영상](#)을 틀도록 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주정부가 운영하는 뉴욕시,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올버니, 웨스트체스터, 록랜드, 오논다가 카운티에 위치한 DMV 사무실에서 PSA를 방영하는 한편, 고객들이 면허를 수령하는 정보 창구 500만 개를 통해 메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부커미셔너이자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고속 인터넷 연결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주민이 학교 교육을 받고 원격 근무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시작하고 진료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브로드밴드는 필수적입니다. 적정 가격을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Hochul 주지사가 추진하는 커넥트올 이니셔티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합리적 가격으로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뉴욕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펙트럼(Spectrum), 알티스(Altice), 버라이즌(Verizon) 등 뉴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속적으로 주 전역에서 적정 가격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address)의 일환으로 1월 발표된 Hochul 주지사의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는 뉴욕의 지역사회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혁신적인 투자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뉴욕이 21세기 연결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최대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뉴욕 시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광대역 통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투자를 통한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주지사의 선도적인 커넥트올 이니셔티브는 [경제적인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등록하고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대역 통신에 접근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은 평균 한 달에 6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월 30달러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유자격 가구는 구매 가격에 대해 10달러 이상 50달러 미만을 기부하면 참여 공급업체로부터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태블릿 구입 시 최대 100달러까지 1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